



거가대교 관광지 조감도
(거제시 장곡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

목 차

<p>■ 건설관련 소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준표도지사 - 허남식시장, 경남 부산 첫 상생 회동 ○ 경남-부산, 1월18일 현안조정회의 개최 ○ 경상남도, 거제장목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 ○ 경상남도, 도 발주공사 부실기업 등 종합 관리 대책 추진 ○ 경상남도, 도 발주공사 감사공무원 Man To Man 책임제 운영 ○ 경상남도, 건설관계자 청렴도 향상 및 재정 조기집행 결의 ○ 경상남도, 200억 원 이상 공사는 외부 전문가가 투명성 점검한다 ○ 경상남도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유치 ○ 경상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3조 2,837 억원 확보 ○ 경상남도, 2012년도에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553억 원 예산 절감 ○ 합천군 지방도 1084호선 해인사IC~가야 구간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양산 ~ 동면간 월평교차로 개선 확정 <p>■ 지식정보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개통, 건물 준공 즉시 새지도에 표기 ○ 자동차와 나란히, 도로공유 철도궤도 시스템 개발 ○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 선정 ○ 『이제는 교량도 아름다움과 자연을 입힌다』 ○ 부산(부산)~마산 열차운행 소요시간 1시간 단축 <p>■ 칼럼(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장 조한권)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계 시 지적도(地籍圖) 설계오차 없어진다.
<p>■ 신기술 정보 19</p>	<p>■ 건설기술심의 현황 20</p>
<p>■ 계약심사 현황 20</p>	<p>■ 기술인 나눔 정보 21</p>



건설관련 소식

홍준표도지사-허남식시장, 경남 부산 첫 상생 회동

- 갈등해소 위한 '현안 조정기구' 운영 등
큰틀 합의



〈현안 조정회의에 함께한 홍준표지사와 허남식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월 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양 시·도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양 시·도지사는 이날 부산과 경남의 모든 현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실무적으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경남 부지사가 참여하는 '현안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양 시·도지사는 거가대로,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최소 운영 수익 보장) 부담 건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산과 경남의 현안사항이 발생 되는 경우 필요시마다 양 시·도지사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모임에서는 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산-경남 현안조정회의에 부·울·경 3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 자료 : 부산시 정책기획담당관실
(051)888-4542

경남-부산, 1월 18일 현안 조정회의 개최

- 회의기구 정례화 및 MRG부담 논의키로

경남도는 경남, 부산 양 시·도간 현안을 논의할 가칭 현안조정회의를 1월 18일(금) 10시 30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안조정회의는 지난 8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양 시·도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 조정하는 기구이다.

시·도지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 협의체는 현안에 대해 실무적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힘든 점이 있었으나, 현안조정회의는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과 현안 담당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8일 개최되는 현안조정회의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의 상견례를 겸하는 첫 회의로 향후 정례화 방안과 더불어 경남과 부산의 재정부담요인인 「거제~부산 연결도로(거가대로) 재정부담구조 개선」과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 부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양 시·도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기구를 구축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주요현안에 대해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055)211-2315

경상남도, 거제장목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

- 73억 5천만 원 규모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경남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년 2월 (주)대우건설에서 경남도를 상대로 낸 73억 5천만 원의 이행보증금 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 대하여 원고 (주)대우건설의 청구를 기각하고 73억 5천만 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12월 27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2월 거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대우건설이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이행보증금 73억 5천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함에 따라, 대우건설측에서는 거제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민원 및 수용재결신청 거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경남도의 책임임을 주장하며 경남도에서 청구한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승소로 우리 도에서 청구한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대우건설측에서 항소할 시 우리 도 소송대리인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약 경남도가 지역주민과 언론 등의 주장에 따라 이 사업을 강제취소하였다면 (주)대우건설이 10년 전 기시행한 통과 도로 및 공설묘지 조성 사업비 42억원, 보상비 100억원 등과 이행보증금 73억 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200여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곤경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지지부진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그 추이가 주목될 것으로 내다봤다.

▶ 자료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055)211-4834

경상남도, 도 발주공사 부실기업 등 종합관리 대책 추진

- 계약법령 임의규정의 엄격한 적용, 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및 점검 강화 등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일부 현안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사추진이 장기화 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입찰 부정당 업체에 대한 참여를 엄격히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실기업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지방계약 관련 법령상 임의규정에 대한 현재까지 미온적으로 적용해오던 것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중(重)하게 적용하여 입찰단계에서부터 부정당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참가 자격요건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등 단계별로 적합한 대책을 시행하고 추진과정에서 위반된 업체는 엄격히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사전심사에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설계의 원가나 공법의 선정 등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입찰공고 이전에는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거쳐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특히, 대형공사 심의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등을 심의위원과 용역업체, 발주청이 참여하는 가운데 질의·응답과 위반행위 감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엄격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연중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 점검 시에는 건설분야 외부 전문가 및 위촉된 명예감시원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면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시행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거나 하도급 위반, 계약의 부당 이행,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를 중점 관리 대상

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이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 게재하여 적격심사 평가 시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건설 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발주 시 지역 공동도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행정력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임금·자재·장비대금 체불방지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부실시공과 계약 불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뇌물제공 등 관련법령 위반 시 ‘당당한 경남시대’에 걸맞게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업체 참가제한 최고한도인 2년 이내의 제한 조치를 엄격히 적용함과 동시에 임의 규정도 현행보다 중하게 적용하면서 각종공사의 조기발주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인계과 계약담당**
(055)211-3522

경상남도, 도 발주공사 감사공무원 Man To Man 책임제 운영

- 공사현장별 밀착감시로 건설관련 부패
ZERO 달성

경남도는 2013년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올해 발주예정인 도내 전 사업장 620건(도로분야 151건, 하천분야 54건, 산림분야 232건, 소방분야 48건, 기타분야 135건)에 대해 책임 감사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건설관련 부패 ZERO화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책임공무원은 공사 관련자와 Man To Man 방식으로 도지사 서한문 및 클린 경남 동참을 위한 리플릿 전달, 건설현장 청렴공사이행 서약서 징구 및 건설공사 계약 시 공무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전달, 각종 행사 및 경조사 협찬 근절 안내(교육, 추적 감시), 업체 등으로 부터 금품수수, 골프접대, 향응제공 근절 안내 및 밀착감시 등을 실시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현지에 나가 청렴 공사 가림판, 청렴배너, 청렴현수막 설치 등을 확인하고, 착공 및 기성·준공 검사 시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면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기성 또는 준공대금 지급 시 하도급자에게 대금지급 여부 등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도내 지역 영세 건설 업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건전한 재정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Man To Man 방식의 사업장별 책임공무원 지정으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 도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나고 2013년도에는 청렴도 상위권을 반드시 이루어내어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감사관실 기술감사팀담당 (055)211-2274

경상남도, 건설관계자 청렴도 향상 및 재정 조기집행 결의

- 1월22일, 지방도 건설관계자 회의 개최

<청렴도향상 및 재정 조기집행 결의 전경사진>



경남도는 올해 도로분야 청렴도 향상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건설현장 책임자, 담당공무원, 현장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2일 경남도청에서 결의를 다졌다.

행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별 담당공무원 지정, 청렴공사 이행 서약서 결의 및 징구, 건설공사 계약 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문 전달하고 앞으로 월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하고 도내업체 참여확대, 해빙기와 우수기를 대비 재해예방대책 강구 등 협조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지방도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할 것을 당부했다.

허성곤 경남도 건설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슬기롭게 이겨내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건설현장부터 청렴실천과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 :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3

경상남도, 200억 원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가 투명성 점검한다

- 1월 23일,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 1/4분기 회의 개최

경남도는 청렴도 취약분야인 공사계약 및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 공공사업의 전 과정을 도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2013년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 1/4분기 회의'를 1월 23일 오전 11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주요활동에 대한 보고 및 평가를 하고 2013년 활동 계획을 협의한다.

한편,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은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6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9월 출범 이후 매분기 모니터링 및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조리 관련사항을 시정·개선해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도에는 대형공사 및 부패 취약한 사업 21건에 대해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공정성을 저해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부분 등 5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패 비리 예방 효과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청렴옴부즈만은 올해에도 20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등 총 140건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낭비 요인과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점검해서 도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지현철 감사관은 "우리 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외부 전문가가 도민의 시각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청렴옴부즈만 활동은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도정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055)211-2295

경상남도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유치

- 거제시로 최종 선정, 인프라 구축 총사업비 252억 원(국비) 중 올해 사업비 30억 원 확보

경남도는 국토해양부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시 소재) 산하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를 거제시에 유치(장목면 일원)했으며, 이번 국회예산편성에서 인프라 구축 총사업비 252억원 중 올해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향을 밝힌 지자체(경남¹) 5개 시·군, 부산시 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자체 심의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유치를 위해 20여 차례 국토부 등 해당 기관과 국회를 방문하여 경남의 해양플랜트 산업생태계 우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총력전을 벌인 결과 최종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이종갑 센터장은 "에너지 자원고갈과 수요증가에 따라 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산업계 애로기술개발, 해양신산업 창출 등의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인프라구축과 연구개발을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1단계로 2015년까지 252억원을 투입해 거제시 장목면 일원에 본관, 엔지니어링 및 연구동 등 총 4개 건물을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를 도가 수립한 ‘경남 해양조선산업 중장기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중장기 육성계획은 ▲ 3대 분야(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레저선박) ▲ 4대 전략(미래전략기술육성, 성장기반조성, 기업경쟁력강화, 비즈니스창출) ▲ 26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및 선박수출 50% 증대(2011년 대비), 해양플랜트 기자재 부품 국산화율 60% 달성, 레저선박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2020년 세계 1위 해양조선 강국 유지·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하동), 해양플랜트기자재시험인증센터(거제), LNG극저온기자재시험인증센터(김해)와 함께 이번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를 우리 도에 유치함에 따라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글로벌 R&D-생산결합형 클러스트조성’을 앞당길 것”이라며, “해양조선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여 ‘2020년 세계 1위 해양조선 강국 유지·확보’를 위하여 올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당당한 경남시대’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전략산업과 조선해양담당
(055)211-2672

경상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3조 2,837억 원 확보

- 지난 해 보다 2,123억 원(6.9%) 증가로 사상 최대 확보
- 홍준표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도내 국회의원과 함께 국고확보 위해 발 벗고 나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도 정부 예산 중 경남도의 국고예산 반영액은 총 681건 3조 2,837억원(국고보조사업 517건 2조 4,948억원, 광특회계사업 164건 7,889억원)으로 2012년도 국고 확보액 3조 714억원 보다 무려 2,123억원(6.9%)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상 최대치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직접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은 98건에 2조 2,727억원이 반영되어 지난해 2조 2,502억원 보다 225억 원(0.9%)이 증가되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고확보를 위해 도지사에 취임하자 지난 12월 22일(토)부터 23일(일) 양일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회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민홍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열악한 지방재정 실태와 경남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정부(안) 반영액인 3조 1,644억 원보다 786억 원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준표 도지사의 제15대 ~ 18대 국회의원 활동 및 원내 대표, 최고대표의원이라는 직책을 맡은 능력과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내년도 지방 예산 운용에 큰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 2월부터 국고확보 추진단을 구성을 시작으로 전 실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사업으로

-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핵심기술 개발 사업 119억원
-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40억 원
- 하수관거 정비 796억원
- 마창진(창원)도시철도 건설 48억원
- 창원 양곡 ~ 완암(국대도 25호선) 건설 300억원
- 소하천 정비 299억원
- 산청 선비문화원건립 20억원
-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87억원
-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72억원
- 지역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0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639억원
-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지불제에 59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 광특회계사업으로

-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31억원
-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99억원
-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 53억원
- 갈사만 진입도로(2·3호선) 개설 92억원
-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47억원
-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04억원
- 국가지원지방도로(9개 노선) 건설 1,021억원
- 생태하천 복원 357억원
-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 20억원
-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30억원
- 하동 대도관광자원 개발 30억원 등 이다.

→ 국가시행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388억원
- 진주~광양간 철도복선화 1,700억원
-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200억원
- 삼랑진~진주복선전철 건설 250억원
-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738억원
- 88올림픽 고속국도 확장 3,965억원
- 고현~하동IC(국도 19호선) 건설 500억원
- 거제~마산간(국도 5호선) 420억원
- 정촌~호탄(국대도 3호선) 건설 238억원
- 국가하천 정비 12개소 584억원 등이다.

특히,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조 763억원이 소요되며, 2012년 말까지 부지보상을 포함 4,515억 원(41%)만 투자되어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금년도에 국비 4,000억원 신청에 무려 3,965억 원(99%)을 확보하였고,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에 738억원, 진주~광양간 철도복선화 사업 1,700억원 등이 확보된 것은 경남 서북부의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교통망 확충에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현룡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및 예결소위 김재경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남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큰 힘을 보태 준 결과이다.

구도권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12년도의 국고예산 확보 경험을 살려 2013년도에도 연초부터 2014년도 국고 예산 지원 신규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리 개발과 확보전략을 세워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예산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
(055)211-2373

경상남도, 2012년도에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553억 원 예산절감

- 정부합동평가 계약심사분야 최우수인 '가'등급 평가

경남도는 2012년도에 도내 시·군(지방공기업, 출연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한 결과, 5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0일 이내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평균 5일로 단축 운영함으로써 예산조기 집행에도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정부합동평가에서 계약심사분야 최우수인 '가'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도내 시·군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심사업무 만족도 조사에서 79.3%의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약심사는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 실적으로는 공사분야 절감액 비중이 6.9%로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컸으며, 용역(4.6%) 및 물품(4.9%)은 반복 사업에 대한 기 심사단가 적용으로 절감률이 낮았다.

시·군별로 보면 시부의 경우 285억원 (51%), 군부의 경우 268억원(49%)이고, 김해시가 57억원으로 가장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비경제적인 공법, 구조계산 보다 과다 설계한 부분, 도면과 상이한 과다 수량 산출분 등을 최적설계안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비현실적인 과다한 인력품 적용을 합리적인 장비조합품으로 조정하고, 적정성이 결여된 견적단가를 건설 공사 표준품셈의 유사공사로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보여 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사례집 (400부)과 업무편람(150부)을 발간하여 각 기관 사업부서에 배부하여 원가산정의 오류를 해소하는 한편, 계약심사를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 2012년 심사실적 >

구 분	심 사 결 과(금액:억 원)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723	8,299	7,746	553 (6.7%)
공사 분야	446	7,317	6,810	507 (6.9%)
용역 분야	133	871	831	40 (4.6%)
물품 구매	144	111	105	6 (4.9%)

▶ 자료 : 회계과 계약심사팀당
(055)211-3543

합천군 지방도 1084호선 해인사IC~가야 구간 개통

- 해인사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경남도는 합천 해인사 주변의 증가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방도1084호선 구간 중 해인사IC ~ 가야 구간을 1월 3일(목) 00:00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 가야면 황산리 구간 총 연장 6.02km 중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위하여 임시 개통한 구간을 4차로로 완전 개통한 것이다.

경남도는 해인사IC ~ 가야 구간 개통으로 지금까지 해인사를 찾는 도로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개통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 속도(매촌 육교 구간 50km/h, 일반 구간 70km/h) 및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 : 도로과 도로계획팀당
(055)211-4663

경상남도, 양산 ~ 동면간 월평교차로 개선 확정

경남도는 양산 ~ 동면간 4차로 확포장 공사 중 2012년 10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월평마을 앞 월평교차로 진·출입시설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월평마을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 시행, 지역주민 설명회 및 관계 기관 협의, 올해 1월 8일 관련 심의를 거쳐 마을 진출입로를 월평교차로에 직접 연결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해당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 기존 월평마을의 진출입로가 국도 7호와 국지도 60호의 기존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하여 왔으나, 본 공사 완료되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왕복 1km를 돌아 진출입을 하여야 하는데 반대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의 양산 ~ 동면 간 총 연장 11.4km, 4차로 확포장공사로 2013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 자료 :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3543



도로 개통건물 준공 즉시 새 지도에 표기

- 국가기본도 선진화 계획 ... 상시 업데이트 · 데이터융합 서비스

앞으로 개통된 도로나 준공된 건물이 지도에 늦게 표기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진다. 스마트폰 등 빠르게 변하는 이용자 환경을 반영해 전자지도가 늘어나고, 필요한 데이터를 융합해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 임주빈)은 국가기본도의 수정주기 단축, 신규 전자지도 제작 및 기술 고도화,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과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기본도 :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국토 전역에 걸쳐 통일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된 지도(우리나라는 1/5,000 지도)

○ 최근 급속한 IT기술발전예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도를 활용하고, 빠르게 변하는 국토 변화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2년 주기 수정체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변화가 많은 주요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한 연내 상시수정체계로 개선된다.

* 국가기본도 수정주기

'02:5년→'07:4년→'11:2년→'13:연내 상시 수정

- 기존 현장조사 방법을 보강하여 건설 준공 도면 활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무인항공기, 모바일매핑 시스템 등의 신기술 적용을 통해 신속하게 지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 이로써 사용자는 어제 공사가 끝난 도로와 건물을 오늘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획득하여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 민간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종이지도 제작을 축소하고 영상과 지도가 중첩된 새로운 형식(PDF)의 전자지도(온맵, On-Map)를 제작 할 예정이며,

* 온맵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개념 전자지도의 명칭으로 전문 S/W나 기술 없이도 사용자 편집이 가능한 지도

- 지도편집 자동화, 데이터 유통·활용 모델 등의 기술을 R&D 사업과 함께 개발하여 지도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나갈 것이다.

○ 해양, 항공, 실내, 지하공간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지도에 표현하고 시멘틱 지도검색, 사용자 참여형 지도, 1/25천 영문판 지도 등의 새로운 서비스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 다국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세계지도 제작·배포

더불어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지명 홍보 및 다국어 지도 배포 등의 활동으로 외교 통상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는 등 올바른 국토 정보의 보급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 이번「국가기본도 선진화 계획」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기본도 제작을 목표로 매년 계획을 검토·보완하여 현실화를 위한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20

자동차와 나란히, 도로공유 철도궤도 시스템 개발

- 우리 신기술로 도로 매립형 철도궤도 만든다

친환경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도심형 트램 등을 운행할 수 있는 매립형 철도궤도 시스템이 앞으로는 외국기술의 수입 없이 우리나라의 독자기술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돌출된 철도궤도를 도로와 일체형으로 매립하여 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이 편리한 “연속패드(PURailstrip)와 레일고정수지(Polycork)를 이용한 매립형 철도궤도 시스템”을 교통신기술 제1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레일고정을 위한 합성수지 재료, 레일패드 및 레일 고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성과 내구성, 시공 정밀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신기술을 기존의 돌출형 철도궤도를 사용하고 있는 항만 및 물류기지에 적용하면 철도차량과 트레일러 등 자동차와의 공유가 가능하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 친환경수단으로 재인식되어 수원시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노면전차(트램) 등을 도시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 금번 신기술로 철도궤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돌출형 콘크리트 철도궤도 대비 약 13%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터널 및 교량에 적용될 경우 터널굴착단면과 교량단면이 축소되어 공사비와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립형 철도궤도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자갈도상 대비 터널 굴착량은 약 8% 감소, 교량상부 두께는 약 50% 감소 예상

○ 아울러 도시환경에 따라 잔디, 아스팔트, 석재, 콘크리트 마감방식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레일을 지탱하고 체결하는 충격흡수용 연속패드와 레일 고정 수지를 독자 개발하여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 하였다.

이 신기술은 국토해양부 미래도시철도기술 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09년부터 '12년까지 개발되었으며, 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내 무가선 저상트램 시험선로와 중부내륙 화물기지에 시범적용 및 성능시험을 거친 결과, 유럽의 성능기준을 만족하고 실용성을 인정받아 금번에 교통신기술로 지정되었다.

* 무가선 저상트램 에너지 인프라 개발 : 연구기간('09.12 ~ '13. 4), 총 연구비 79억원(국비 42억원)

이번에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10년 4월 교통신기술 지정·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13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보호기간은 5년이다.

기타 기술 내용이나 시공 사례 등 궁금한 사항은 국토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1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 또는 개발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031-460-5817)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44)201-3818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 선정

- 7개 지자체별 R&D 성과물 적용 서비스 모델 개발 예정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월 9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 교통, 재난관리센터 등을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하여 One-Stop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U-City 통합플랫폼 등을 시범적용하기 위한 2013년도 U-City 시범도시로,

- 서울 은평구, 경기도 남양주시·화성시·부천시, 강원도 삼척시, 경상남도 양산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U-Eco City R&D의 성과물을 적용하여 타 지역 확산이 가능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U-서비스 구축을 위해 방법·교통센터 등 통합, 교량안전, 시설물 관리, 의료, 환경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민체감형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지자체로 확산 보급할 계획이다.

‘13년 「U-시범도시」사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25일간(12.11.27~12.21일)의 공모기간을 거쳐 10개 지자체에서 응모했으며,

- 관·산·학·연 등 U-City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7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적정성, R&D 성과물 적용, U-City 계획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 기존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사업계획 및 U-Eco City R&D 성과물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44)201-3730

『이제는 교량도 아름다움과 자연을 입힌다』

- 지구촌 멋진 교량을 한눈에 - 화보집 발간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전 세계적으로 경관과 미관을 중시하는 교량 설계 경향을 감안, 아름다운 교량 화보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현재, 자연과 조화된 설계, 환경을 중요시하는 설계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대표적 토목 구조물인 교량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심미적 가치와 경관을 중시하여 잘 만든 교량 하나는 세계 각국 관광객에게는 그 지역의 명물로 랜드마크 되고 있음은 물론, 관련 기술자에게는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킹 장소로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 인천대교는 개통후 국내외 관광객 및 전문가 등 121만명 방문

* 미국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관문으로 연간 1,700만명('09) 방문

* 호주 하버브리지는 오페라하우스와 더불어 호주의 랜드마크로 '13년 새해맞이 불꽃축제시 관광객 150만명 방문

국토해양부는 이 화보집이 교량관련 전문가에게 세계 각국 전문가가 설계한 우수 교량을 쉽게 접하게 하여 예술적 영감을 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우리가 무심코 건너다니는 교량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사진을 통해 교량기술 발전 과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건설될 교량은 이동성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우리나라 및 세계 속의 아름답고 특수한 3개 교량형식*을 주제로 300여 개 교량사진, 형식별 발전과정, 시공과정 및 교량 제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

- * ① 현수교 : 곡선으로 늘어뜨린 현에 교량 바닥을 매달아 하중에 지지하는 형식(이순신대교, 남해대교, 금문교)
- ② 사장교 : 주탑에서 현을 직선으로 늘어뜨려 비행기가 비상하는 모습의 형식(인천대교, 노르망디교 등)
- ③ 아치교 : 구조체 자체가 곡선형식 (방화대교, 시드니 하버교 등)

『아름다운 교량』화보집은 관련 정부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관련 학협회 및 연구기관, 주요도서관, 설계사 등에 배포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관(<http://cyber.mltm.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44)201-3896

부산(부전)~마산 열차운행 소요시간 1시간 단축

- 2019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완공, 부전에서 마산까지 26분(현재 88분) 소요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월 30일(수) 스마트레일주식회사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레일(주)*는 1조 4,54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복선전철 32.7km, 정거장 5개소의 설계, 시공과 준공후 20년간 역무 운영 및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

* SK건설·삼성물산·한화건설 등 17개 건설사와 한화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할 예정

현재 부전에서 마산까지의 열차운행은 경부선 삼랑진을 거쳐 88분(87km)이 소요되나, 2019년 부전~마산 직결노선이 완공되면 26분(51km)에 운행된다.

- 본 노선은 동쪽으로 부산~울산, 서쪽으로 경전선과 직결되므로 부산을 중심으로 동부·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고 및 동남권 광역경제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해양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83



건축설계 시 지적도(地籍圖) 설계오차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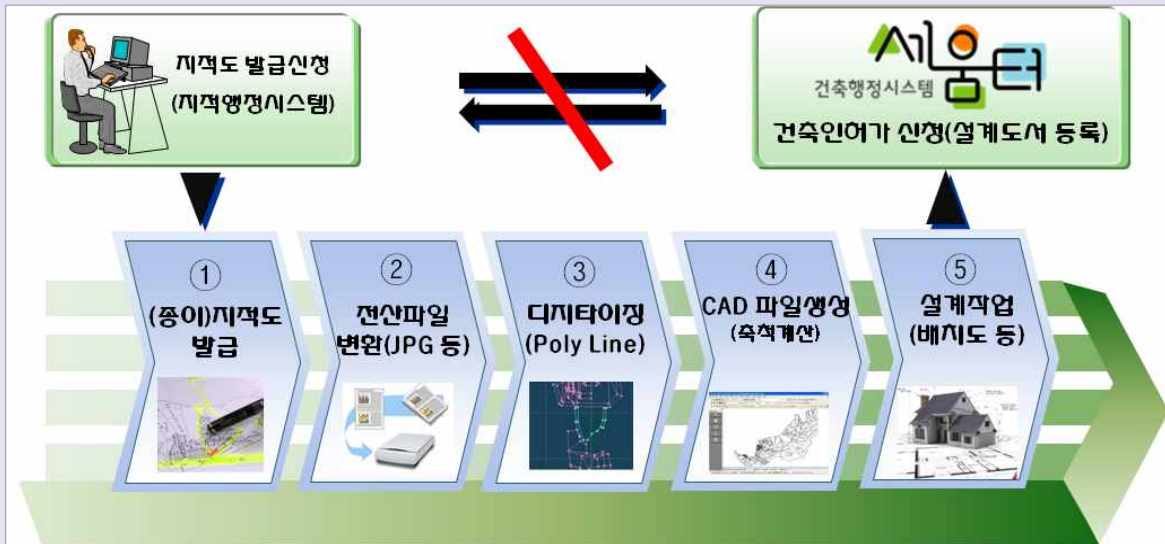
● ●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건축진흥과장 조한권

“건축(建築)”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행위이다.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시 첫째로 제출해야 하는 도서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은 토지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어디에 위치한 어떠한 땅인지에 대한 정보는 건축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건축사는 우선적으로 “지적(地籍)”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건축이 가능한 경계를 나타내는 ‘건축선’도 토지의 경계선인 ‘지적선’을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주로 제도판과 연필, 트레이싱지 등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왔던 건축설계는 점차 전산파일(CAD)를 활용한 전산작업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수작업 과정에서 생겼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확성에 기여하게 되었고 불필요하게 반복되었던 작업들도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BIM으로까지 연결되어 단순한 설계제도의 정확성 수준에서 건축 전반의 공정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축설계작업이 전산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설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적도가 여전히 종이 기반으로 발급되고 있어, 이를 다시 CAD로 변환하는 작업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 현행 건축설계 작업과정 >

현재의 지적제도(地籍制度)는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1910~1918) 및 임야조사사업(1916~1924)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대장과 도면을 종이 기반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지적 관련 작업 역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0년 이후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장전산화('92) 및 도면전산화('05)가 이루어졌지만, 건축에 기본이 되는 지적도면은 디지털정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다행히 더 이상 종이도면과 장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전 국토의 토지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다툼이나 업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총 1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장기간 진행 될 계획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전반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점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에서는 ‘건축사에게 종이기반으로 제공되던 지적도를 전산파일로 제공’ 함으로써 건축설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과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의 상호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화 작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지적도 발급 신청(방문, 인터넷) ⇨ 종이기반 지적도 발급 ⇨ 지적도 스캔(디지털라이징)
⇨ CAD파일 변환 ⇨ 건축설계 적용

(개선) 지적전산파일 신청(세움터) ⇨ 지적전산파일 제공(건축사) ⇨ 건축설계 적용

건축사에게 지적도를 전산파일로 제공하는 방법은 건축사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속하여 건축사 자격 및 공인인증 절차를 통해 전자설계도면(DXF) 형태로 받게 되며, 건축인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토지와 건축물이 융합된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지적전산파일 이용 절차 >

그동안 세움터는 공간(위치)기반이 아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전산파일 제공은 서식중심의 인허가 신청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건축인허가를 위한 종이 지적도는 연간 약 20만건이 발급되고 있는 바, 이러한 종이 지적도가 전산파일로 직접 제공되면 건축설계가 정밀해지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와 지적도를 이용한 설계 작업과정도 대폭 간소화 될 것이다.

이는 현 지적제도의 탄생 이래 100여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일로서 앞으로 선진화된 국가 공간기반의 건축물 정보체계로 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건축과 지적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협업체계가 부족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에 연구위원으로 파견근무 중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방종식, 이현숙)이 이번 과제를 비롯하여 건축과 지적의 상호 연관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역할과 공헌을 하고 있다.

창조적 도시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가들의 예술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문적인 재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기초정보 제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가 많은 정보의 생산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 활용 기술들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코오롱글로벌(주)
	(주)티에스테크노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83호
- 기술분야 : 토목
-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록볼트 설치를 위하여 천공한 구멍에 튜브형 강관 록볼트를 넣은 후 前面 주입구를 통해 록볼트 내부에 유체(물)을 고압(250 ? 300bar)으로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밀착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암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과 기계적 맞물림 효과로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록볼트 시공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체(물)의 주입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한 주입구가 록볼트 前面에 형성된 튜브형 강관 록볼트를 사용하고 전면주입구를 통해 유체(물)를 록볼트 내부에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정착시킴으로써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록볼트 시공기술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 및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엔코텍
	중앙산업(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87호
- 기술분야 : 토목
-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견인튜브와 반전튜브를 분리하여 각각의 튜브에 수지를 함침하여 튜브의 두께와 중량을 줄이고, 현장에서 우선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 및 맨홀과 관입구에 설치하여 튜브손상방지를 위한 견인튜브 유도장치를 통해 견인튜브를 삽입한다. 삽입 완료후 견인튜브내로 수지가 함침된 반전튜브를 공기압으로 삽입 시 반전기내부에 미리 설치된 열호스를 반전과 동시에 관입구까지 놓이게 한후 반전삽입 완료 후 열원(증기열)을 공급하여 현장에서 신관을 생성하는 연성라이닝 비굴착 전체 보수 기술임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지가 함침된 견인튜브와 도르래를 응용한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 및 반전 튜브의 관내 초입부에 증기를 분사하는 경화방식 적용하여 기존하수관을 보수하는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D1,200이하)



건설기술심의 연방

2013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건 명 : 통영항 다목적부두 건설공사
- 심의일자 : 2013. 1. 25 (금)
- 요 청 자 : 경상남도(항만물류과장)

의안 번호	요청사항 (발주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심의결과
2013-11	실시설계 (경상남도)	통영항 다목적부두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통영시 항남동 · 사업내용 : 부두 L=150m, B=50m · 사 업 비 : 124억원(공사비 121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6년 	조건부 의결

▶건설지원과 (O55)211-4625



계약심사 연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1월 현재	계	65	91,640	87,490	4,150	4.53%	
	공사	토목	22	63,791	60,816	2,975	4.66%
		건축	5	4,464	4,250	214	4.80%
		기타	6	5,544	4,952	592	10.68%
	용역	21	17,173	16,834	339	1.98%	
	물품	11	668	638	30	4.50%	

▶회계과 (O55)211-3548



201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2012년12월31일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체는 1차,2차 모두 실적신고를 하여야 함.
2. 신고기간
 - 공사실적(1차) : 2013. 2. 1(금)~2. 15(금)
 - 재무제표(2차) : 2013. 4. 1(월)~4. 15(월)
3. 신고접수처
 - 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4. 제출서류
 - 공사실적 : 정본철, 증명서철, 자기공사철, 상호
 - 재무제표 : 기술개발투자비 등

※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순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rudgh123@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